



#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



잭슨·슈미트 지음 | 고정인 外 옮김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는 성경 전문 출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에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과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존되고 전파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he King James Bible publishing company, 'In Christ Jesus', makes all efforts through the grace of God and the leading of the Holy Ghost to preserve and spread the only gospel and the truth of the Lord Jesus Christ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without any defect.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

지은 이 / 잭슨·슈미트, 옮긴 이 / 고정인

1판 1쇄 / 2016년 6월 15일

2판 1쇄 / 2022년 1월 24일

발행처 / 그리스도예수안에

발행인 / 정동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83

전화: 032-872-1184

웹사이트: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전자우편: [webmaster@KeepBible.com](mailto:webmaster@KeepBible.com)

ISBN 978-89-92485-50-0 03230

정가 : 비매품

잘못된 책은 바꿔 드립니다

#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

잭슨·슈미트 지음  
고정인 옮김

*“What Must We Do or Has  
Christ Done the Work for Salvation?”*

*by Jackson*

*and*

*“Done”*

*by Schmidt*

*— Jackson & Schmidt —*

◆ **일러두기**

본서에 있는 성경 구절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킹제임스 흠정역 마케스티 에디션, 2021>(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에서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 ‘종교’(Do)와 ‘복음’(Done)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책자는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보여 주기 위해 미국에서 출간된 두 개의 책자를 번역한 것입니다.

먼저 <종교와 복음>은 잭슨(Bill Jackson)이 지은 ‘What Must We Do or Has Christ Done the Work for Salvation?’을 번역한 것으로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의 차이를 매우 간결하게 보여 줍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슈미트(Cary Schmidt)가 지은 ‘Done’을 한마음 미션의 고정인 자매님께서 번역한 것으로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매우 귀중한 책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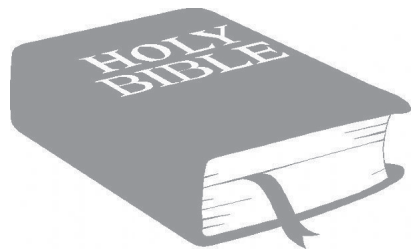
이 책자는 영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 사랑침례교회의 미디어 선교 헌금으로 제작해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이 책자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및 북한 지역 동포들에게도 전달되어 귀중한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 원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에 관하여 바르게 알기 원하시면 유튜브에서 ‘구원 바로 알기’와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강해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샬롬.

2016년 4월  
정동수 목사(사랑침례교회)

종교와 복음 .....	8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	18
1. 당신은 육신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	22
2. 세상에는 단 두 가지 종교만 존재합니다 .....	29
3.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	42
4. 인간은 다 결함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	46
5. 하나님은 단 하나의 지불 방법만 인정하십니다 .....	56
6. 누가 저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는 없나요? .....	66
7. 하나님의 유일한 기적의 대리인이 계십니다 .....	71
8.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 주셨습니다 .....	79
9. 최고의 선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87
10.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	93
결론 .....	104

사람을 향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딤후3:4-5)





## 종교와 복음

크리스천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유익을 얻으면 우리는 그것에 그치지 말고 신실한 증인이 되어 주변의 선교지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종교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믿는 바가 더 확실해져서 신실한 증인이 되시기 원합니다.

### 선교사와 선교지

로마서 10장은 성경에서 선교사와 선교지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는 복음 선포에 대한 도전의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와 선교지가 무엇인지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교사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은 13-15절에 있습니다.

---

이 글은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그리스도 예수안애)에서 발췌한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찌 부르겠느냐?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폭발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한 내용도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며 복음 선포자와 선교사라고도 합니다. 선교사는 영어로 ‘Missionary’인데 이 말의 뜻은 사명을 가진 자, 사명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방금 읽은 13-15절 말씀처럼 화평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선교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선교사’에 관한 말씀은 10장 4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끝마침’은 영어로 ‘End’인데 사실 이 단어는 짧지만 참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길을 가다가 끝이 나면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없는 것이 바로 끝입니다. 그것이 ‘End’입니다. 선교사는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말 그대로 끝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다 끝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거기에다 자꾸 무엇을

더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다 이루었다.”고 말한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접시를 닦습니다. 그런데 제가 접시 닦는 일을 다 마쳤다고 했는데 제 아내가 또다시 닦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를 모욕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못 믿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자꾸 거기에다 무엇을 더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며 결국 그분을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끝내신 일 즉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주석을 썼지만 이 일에 대한 가장 좋은 주석은 성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지만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 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지금까지 서서 일하시지 않고 일을 다 끝내고 앉아 계십니다. 일이 다 끝났으므로 서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2010년에 성령님의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일을 통해 구원을 얻어서 2040년에 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기 위해 이 30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십일조 하고, 주일 성수하고, 큰 죄를 짓지 않고, 선행을 베풀고, 전도하고, 목사님 말을 잘 듣고... 등등

과연 이 대답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바른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선행을 베풀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남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고도 충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용서(시103:12)와 완전한 구속(사53:5-6)을 얻으며 바로 이것을 위해 그분께서 무한대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선물은 누구나 값없이 얻을 수 있지만 값이 싸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크리스천은 로마서 10장 4절의 진리 안에 살고 있으며 그래서 모두 선교사입니다. 로마서 10장은 이처럼 선교사가 누구인지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교지가 어디인지도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로마서 10장 2,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여'로 번역된 'ignorant'라는 단어는 결코 '무식하다'는 것이 아니고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학식이 많은 사람도 칼국수 만드는 법을 모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여인이라 해도 자동차가 고장 나면 그것을 고치는 방법을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학식 있는 사람들도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 즉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일을 모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따르려고 노력합니까?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세운 기준에 따라 일하고 가슴 뿌듯해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범주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독자는 어떻습니까? 선교사입니까? 선교지입니까?

힌두교도들은 영원한 복을 얻기 위해 반드시 갠지스강에 몸을 담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교인들 중에서는 도덕률을 잘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고 믿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구원을 받을 줄 알고 충성 봉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주교인들은 선행을 하고 주일에 미사에 참석하고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 구원을 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부들 중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90%를 했고 나머지 10%는 각자가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역 즉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마치신 일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끝내신 사역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일이 끝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계속해서 일을 해서 그것을 끝내려 할 것입니다. 사실 일이 끝났음을 알게 되면 참으로 큰 위안을 받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도 집에 가서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손님들이 많이 와서 대접을 한 뒤에 설거지할 그릇이 수북이 쌓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식사 후 또 곧바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경우 제 아내는 교회에 가셔도 설거지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예배가 끝나면 빨리 와서 설거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딸이 엄마를 생각해서 이미 설거지를 다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배드리는 동안에 이미 설거지는 다 끝났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제 아내는 그것으로 인해 걱정할 것입니다. 딸이 이미 설거지를 다 끝냈음을 안다면 얼마나 큰 위안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이 끝났음을 알게 되면 큰 위안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미 구원 사역을 다 끝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내 것으로 적용하기만 하면 구원받고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선교사든지 선교지든지 둘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선교사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단번 속죄의 복음을 들고 선교지로 나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선교지가 멀리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내 가족, 이웃, 친구, 직장 동료 등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선교 대상이며 선교지입니다. 선교 후원금을 모금하고 다른 나라로 떠나야만 선교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0장에서 바로 선교사와 선교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선교지와 선교사가 바로 붙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10장 4절의 진리 안에 있으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선교지는 10장 2-3절에 있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 ‘Do’ 종교와 ‘Done’ 복음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두 개의 바구니를 비유로 들겠습니다. 하나

는 여전히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속한 'Do 바구니'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알며 믿는 사람이 속한 'Done 바구니'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은 우리의 선교지로서 'Do 바구니'에 속한 사람이며 복음을 믿는 사람은 선교사로서 'Done 바구니'에 속한 사람입니다.

'Do 바구니'에 속한 사람은 무엇인가 자신이 계속해서 해야만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믿기에 쉬지 않고 일하며 자기의 의를 추구합니다. 반면에 'Done 바구니'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전하게 끝내 놓으신 일을 100%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를 보여 드리기 위해 검은색과 하얀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구분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검은색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말에 검은색을 표현하는 말이 여럿 있습니다. '새까맣다', '까맣다', '검다', '거무튀튀하다', '거무스레하다', '가무잡잡하다' 등등. 도대체 어느 것이 가무잡잡하냐고 물으면 대답이 각양각색일 것입니다.

밤과 낮을 비교해 봅시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낮과 다른 것 같이 이것은 저것과 다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언제 밤이 시작되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가 정확하게 밤과 낮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저녁 6시면 밤입니까, 낮입니까? 물론 언제 정확히 낮이 시작되는지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이처럼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무엇을 하고 있는 것' 즉 'Do'와 '이미 끝난 것' 즉 'Done' 사이에는 절대적인 구분이 있습니다. 너무 명확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거의 끝난 것은 아직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고 있는 것'과 '이미 끝난 것'은 확연히 구분됩니다. 이보다 더 절대적으로 확신 있게 구분하기 쉬운 것은 없습니다.

집을 떠나서 교회에 왔으면 집을 떠난 것입니다. 아직도 집에 있으면 교회에 안 온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들었으면 이미 찬송 부르는 것은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을 하면서 동시에 일을 끝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아직도 무엇을 하고 있으면 아직 끝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끝을 냈으면 더 이상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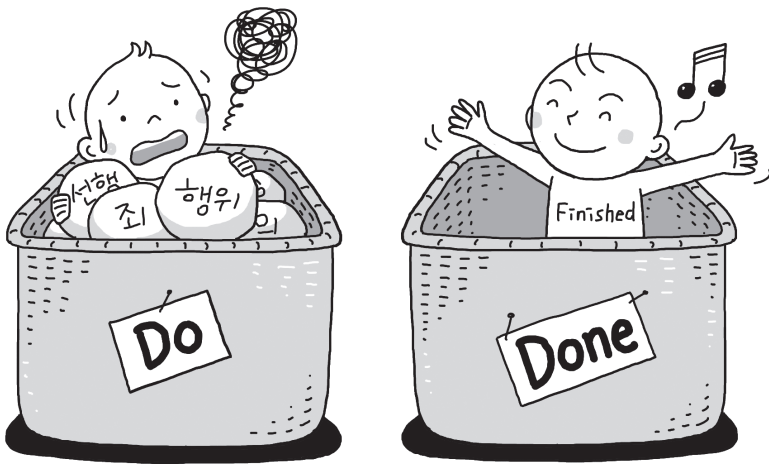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구원에 필요한 속죄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상의 문제요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선교사로서 'Done 바구니'에 속한 사람이고 선행과 학식과 지식과 재물을 통해 자기 의를 세우려는 사람은 선교지로서 'Do 바구니'에 속한 사람입니다. 전자는 복음에 속한 사람이고 후자는 종교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모양만 다를 뿐이지 다 같습니다. 거기 속한 이들은 다 'Do 바구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Do 바구니’에 속한 사람이냐, ‘Done 바구니’에 속한 사람이냐로 분류하면 됩니다. ‘정치가인가, 종교인가, 잘생겼는가, 부자인가, 학식이 많은가’로 구분하지 마시고 ‘선교사인가 아니면 선교지인가’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네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 없이 지내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쿠스 출신의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이니이다, 하매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네 배 속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네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 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며(창15:1-6)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기 위해 무슨 일을 했나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할 때에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은 바로 ‘Done 바구니’에 속한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구절이 이와 비슷한 경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



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3장 5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누군가 무엇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그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구원받기 위해 여러분의 선행과 종교와 전통과 학식과 재물과 지혜를 따르시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Do 바구니'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일을 신뢰하며 오직 그분만 의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Done 바구니'에 속한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오직 두 부류의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셔서 '나는 Do 바구니에 속했다'고 느끼시는 분은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회개하고 주 예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그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신 일만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들의 용서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Done 바구니'에 속하신 분들은 다 선교사입니다. 내 선교지가 어디인지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예수님의 'Done 바구니'의 복이 여러분 위에 영원히 임하길 기원합니다.



##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만약 하나님께서 일대일로 당신 옆에 마주 앉으셔서 평소에 의심을 품던 것들에 관해 질문하도록 흔쾌히 허락하신다면 당신은 그분의 제안을 받아들일지겠습니까? 더불어 기꺼이 하나님의 일들에 관해 물어보고 그분의 계획을 이해하여 마침내 그분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친히 사랑하시는 당신을 방금 그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이 사야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던진 질문에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심들에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지극히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알고 계시며, 당신이 친밀하게 다가와 당신의 삶의 세세한 문제들까지 그분과 함께 변론하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저는 당신이 이 책을 읽으면서 그분의 초대를 받아들이시기 원합니다. 지금 조용한 장소로 가서서 마음을 열고 성경 구절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 진리의 말씀은 종교 제도에 의해 희석되고 왜곡되었음에도 여전히 명확하며 사람의 마음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성경에는 본래 당신의 삶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지만, 대부분 교회에서 전해지는 설교나 신앙 서적에서는 묘하게도 그러한 구절들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하고 쉬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지각이 성장해 머리가 굽어진 어른들은 그냥 지나쳐 버리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말씀은 사리에 맞는 이유를 통해 입증될 수 있지만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만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이 당신의 삶과 운명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당신이 읽을 수 있는 메시지 중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삶과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 잠깐만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당신이 이 작은 책을 찾았는지 또는 어떻게 이 책이 당신의 손에 쥐여졌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은 삶에 대한 정답을 찾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조직화된 종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궁금해하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당신은 삶이 그저 흘러가고 있다는 것 외에 무언가 더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 당신이 그저 눈에 보이는 몸뚱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삶의 모든 것에는 그 목적과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출생과 삶, 죽음 그리고 목적 없이 무작위로 일어나고 있다고 여겨지는 진화의 순환 과정 외에 분명히 무언가가 더 있을 겁니다. 당신과 당신의 미래는 곧 소멸될 이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을 겁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당신은 이미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신의 양심에 지울 수 없도록 촘촘히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러한 진리는 심지어 당신의 영적 유전자의 한 부분입니다. 또한 당신의 놀라운 지적 능력은 당신이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밝히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당신은 창조주께서 만든 모든 창조물을 통해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것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고통과 문제가 가득한 세상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과 의구심을 품은 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주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보다 더 확실한 정보와 더 깊은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당신은 더욱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찾기만 하면 당신이 몰랐던 더 많은 것을 알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까? 당신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신뢰할 만한 이유를 듣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바꾸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만약 삶과 죽음 그리고 영원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 확립된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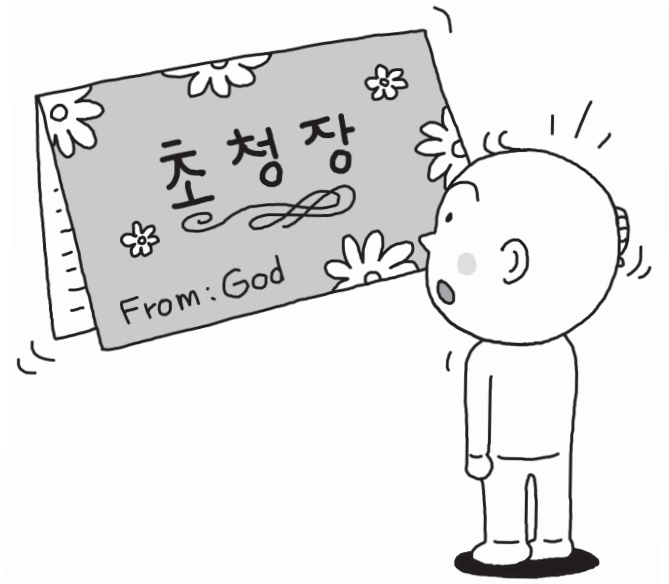
현재 당신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실제 살아 계신다고 잠시 가정해 봅시다. 그분이 당신을 창조하셨고 당신을 몹시 사랑하신다고 말이지요. 당신을 향해 그분이 완벽하고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지만 당신이, 당신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원수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무자비한 원수에게 지금 인질로 잡혀 있다면 어떨까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구출 작전을 수행 중이시고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매일매일의 삶 뒤편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본질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당신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두려움을 영원히 벗어버리고 당신이 어디에서

죽음 이후의 영원의 시간을 보내게 될지 알 수 있다면, 그리고 놀라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에서 당신을 구해 주시려고 당신의 마음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신다면 당장 문을 열어 하나님을 맞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부디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내면을 만지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기회를 드리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읽어 나가 보세요. 저는 분명히 당신이 좋아하는 내용이 이 책에 가득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 1장

# 당신은 육신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50여 년의 생애 중 처음으로 무언가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저에게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무신론자에서 신앙인으로 변했어요. 그동안 살면서 이런저런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겪었지만 정말이지 제가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건 진정 제 생애 최고의 복된 일입니다.

그는 제가 자주 가는 레스토랑의 매니저였는데 어느 날 저는 그에게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세 번째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난생처음 그는 삶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과 줄줄이 일어나는 의미 없는 상황 외에 무언가가 더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품었던 의문을 솔직히 말하고 본인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무언가에 대해 더 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의 대화가 끝난 뒤 저는 그에게 이 주제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의논해도 되는지 정중하게 물어보았고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질문을 계속하는 걸 귀찮아하지만 않으신다면요.

그 자리에서 저는 그에게 ‘생각할 거리’를 충분히 주기로 약속하고, 그러한 생각들을 그가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성경 구절들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저는 우리가 이 여행을 함께 떠나기 전에 당신이 먼저 이 중요한 진리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육신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대중문화가 전하는 메시지와는 반대로 당신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살, 피, 그리고 무작위로 진화된 생물학적 물질 외에 무언가가 더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면도하고, 씻고, 옷을 걸치는 당신의 몸뚱이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3절에서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살전5:23).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며,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우리의 걸 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데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육신 그 이상의 존재라는 사실이 왜 그리도 중요한 것일까요?

첫째로, 이 말은 다가올 육신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무언가가 당신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그저 몸뚱이에 불과한 존재라면 당신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진정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

죽음뿐이라면 그 누가 진심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것이 당신 삶의 종착지라면 과연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둘째로, 당신이 육신 그 이상의 존재라면 그것은 당신이 그만큼 귀중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이한 생물학적 우연의 결과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면 당신은 분명히 창조된 존재입니다. 만약 당신이 창조된 존재라면 당신은 응당 당신을 창조한 창조주께 모든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당신은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삶은 우연에 의해 무작위로 연결된 사건들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셋째로, 그러한 사실은 당신에게 무한한 희망을 줍니다. 육체적인 삶과 죽음 외에 무언가 더 있다는 것은 당신이 현재의 삶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통과하고 언젠가 반드시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인생은 고달프며 당신은 언젠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라는 문구를 보신 적 있나요? 이것은 참으로 절망적인 인생관이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삶의 대부분이 매우 고달프고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것들 외에 무언가가 더 있다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삶에는 당신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고 흘러가는 시간 이상의 무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관한 증거를 원하시나요?

사람의 양심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당신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물학적 물질이 자연 발생적으로 양심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제가 냉장고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양심은 혼적이며 영적인 것이고, 살덩어리와 같은 물질은 절대 영적인 사건들을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육신은 그저 육신일 뿐



입니다. 그것은 좋거나 나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숨이 끊어지면 그 자리에서 썩어갈 뿐입니다. 저는 지저분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명확하게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친구여, 당신의 양심 자체가 곧 당신의 혼(魂)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양심은 옳고 그름을 아는 당신의 내적 지식입니다. 양심은 당신의 창조주에 대한 지식과 모든 창조물 안에 있는 그분의 도덕적 규범에 대한 지식 즉 하나님이 주신 지식입니다.

지구라는 행성 곳곳에 사는 인간들이 누구나 다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무언가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양심이라는 이 지식을 기록해 놓으셨음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유전자 중 한 부분입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당신은 모든 사람이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섬기고 있음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조차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 경우 그 사람 자신이 신이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명백하게 인간의 마음에 새겨 주시고 나타내 주신 것을 거절하는 인간들과 하나님이 논쟁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습니다.

같은 장의 19절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알려 주는 것을 모든 사람 속에 분명히 드러내셨다고 말하며, 21절은 우리가 고의로 이러한 내면의 소리를 거부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말합니다.

또 한 번, 로마서 2장 15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

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그렇다면 이게 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그 의미를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즉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창조주의 존재나 우리의 삶에 대한 그분의 관심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하나 남껴서 우리 마음에 기록해 두신 양심과 진리를 문자 그대로 무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모두 한 가지 기본적인 결론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만 보이고 그 기능이 발휘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히11:3).

창조된 것들(저와 당신)은 눈에 보이는 것들(우리 주변의 세상)로 만들어지지 않았 습니다. 이 말은 곧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지 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과 더 관련이 깊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당신은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공기는 볼 수 없지만, 당신은 숨을 쉬기 위해 그것에 의존합니다. 당신은 희망, 기쁨 또는 평화를 볼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 간절히 그것을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당신의 마음은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그분의 사랑

을 온전히 받고 그분께 수용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 그 이상의 존재라고요? 물론입니다! 당신의 몸은 실제로 당신의 임시 거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우리의 육신을 ‘집’ 또는 ‘장막’이라고 부르십니다. 당신이 매일 밤 옷 한 벌을 벗고 다음 날 새로운 옷 한 벌을 걸치는 것처럼 언젠가 당신은 당신의 육신을 떠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육체와의 분리를 의미하는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혼은 언젠가 몸의 장막을 떠날 겁니다. 그 순간 당신의 육신은 숨을 거두고 움직임과 기능을 멈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당신인 속사람은 육신과 분리되어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단지 육신,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입니다! 물론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몸을 잘 관리하고 다루세요. 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육체적인 것에만 너무 집중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은 혼입니다. 당신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당신은 창조되었으며 대단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단서들을 읽어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창조주가 당신 곁에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보고 들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도록 이미 충분한 정보를 주셨고, 당신이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장을 마치면서, 당신에게 주고 싶은 짧은 과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는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은 지금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또 다른 눈 즉 지각(깨달음)의 눈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이 책을 계속 읽어나가기 전에 진실한 마음으로 다음처럼 간단한 기도를 따라 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저 살덩어리의 집합체인 육신이 아니라 그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과 제 눈에 보이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삶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나갈 때 저의 지각의 눈을 밝혀주시고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심으로 간절히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아멘.

## 2장

# 세상에는 단 두 가지 종교만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몇 개의 종교들이 있을까요? 수백 개 아니면 수천 개일까요?

미국에 혹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신앙 체계와 종교 구조를 모두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방대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각 종교가 믿는 신과 그 다양한 신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는 것에 대해 혼란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종교를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몰아넣고 “종교는 다 똑같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야.”라고 말하는 것이 최근에 대유행인 듯합니다. 이러한 신념은 편리하지만 사실 아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종교들이 믿는 신념은 각각 상당히 다릅니다. 실제로 몇몇 종교는 180도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길은 같은 곳으로 이끈다.”라는 결론을 내는 것이 듣기에는 좋아 보여도 이러한 이론은 이치에 맞지 않을뿐더러 성경에서 말하는 바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모든 종교의 사소한 것들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문제의 핵심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비진리로부터 진리를, 그리고 허구로부터 진실을 구분해 낼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참된 계획

과 인간의 허무한 계획을 가려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합니다.

다시 본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몇 개의 종교가 있을까요?**

**단 두 개의 종교만 존재한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사실 당신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단 두 가지의 기본 카테고리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자그마한 차이부터 중요한 신학적 구분과 같은 외관을 모두 벗겨 내면 좀 더 쉽게 문제의 핵심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종교는 우리가 1장에서 다뤘던 내용에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조주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창조주를 정의하는 것과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차이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창조주를 알아가고 어떻게 평화로운 ‘사후 세계’에 들어가느냐가 이 그룹들을 나누는 척도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하나님에게 다가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느냐?”, 바로 이것이 모든 종교를 구분하는 척도입니다.

세상 대부분의 종교는 각각 나름대로 이 두 가지 기초 질문에 답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양하고 복잡한 신앙 체계들을 두 개의 기초적인 신앙 체계로 간소화시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 두 개의 신앙 체계는 바로 ‘행하라’(Do)와 ‘이루었다’(Done)입니다. 이 두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책을 마칠 때쯤에는 이 두 단어가 매우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행하라’(Do)라고 말하는 종교들을 살펴봅시다. 이것은 종교 제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들의 주된 메시지는 ‘신의 인정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당신이 행해야 하는 일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가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은 신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무언가를 ‘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 안에서 신은 화가 나 있는 선생님처럼 그러합니다. 신은 매우 화가 나 있고 사람들은 못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신은 천국(천당 혹은 극락 세상) 어딘가에 앉아 자기를 불쾌하게 만드는 모든 민족들에게 화를 내고 있고, 그들이 무언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스스로 잘못을 만회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교는 신이 왕좌에 앉아 팔짱을 낀 채로 인간들이 신을 위해 선한 일이나 종교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그들의 실패를 만회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신이 우리가하기를 원하는 일’은 상당히 다양하므로 이 세상에는 매우 다양한 체계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핵심 즉 본질은 간단하게 말해 ‘행하라’는 것입니다. 옳은 일은 하고 잘못된 일은 하지 않다 보면 신이 어떻게든 당신을 천국으로 들여보내 준다는 것이 이런 종교들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십 가지 다른 방식으로 요리된 마카로니 치즈(치즈 소스에 마카로니를 넣은 요리)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각 종교의 요지와 주된 메시지는 같습니다.

신은 당신에게 화가 나 있으니 그의 화를 풀고 기쁘게 헤드리기 위해 빨리 선한 일을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행하라’ 카테고리 안에서 모든 종교는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을 달리 가지고 있습니다. 몇몇 종교의 목록은 극도로 길거나 지루합니다. ‘죄를 고백하라’, ‘세례를 받아라’, ‘자선 행위를 하라’, ‘입교하라’, ‘머리를 밀라’, ‘공향에서 꽃을 팔아라’, ‘집집마다 다니며 책을 팔아라’ 등등. 그 목록은 사람의 상상력처럼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십 년이 지날 때마다 새로운 종교가 새로운 목록을 들고 나타납니다.

나머지 제도들은 ‘착하게 살아라’, ‘친절하라’, ‘선한 행위로 잘못된 일들을 덮도록 노력하라’ 등등 간단하며 공통적인 것들입니다.

몇몇 제도의 목록은 자해를 가하는 성직자 임명식, 어린아이들을 희생물로 바치기, 자살, 살인, 그리고 고통스러운 형태의 속박이나 고행 등 상식 이하이거나 지나치게 괴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어떤 쪽이든 기본적인 목적이나 주된 메시지는 같습니다. 그것은 곧 신을 향해 사람이 스스로 차근차근 길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신의 목록에 있는 일들을 수행해야 하고 신의 요구대로 행동하며 신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신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온 지구에 퍼져 있는, 수많은 종교라는 틀 안에 존재하는 공통된 특성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신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무언가를 행해야만 하는 복잡한 종교적 행위에 묶여 있습니다.

‘행하라’는 형태의 종교는 매우 다양한 방식과 구조 즉 다양한 조미료를 뿌린 형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결국 다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로 나아갑니다. 신은 일을 시키는 감독이고 우리 인간들은 강제 노역을 하는 노예들입니다. 신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받아들여지게 하려면 우리는 그를 기쁘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내야만 합니다.

이러한 종교 제도의 안타까운 점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절망과 속박만 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에게 완전히 버려졌다는 것과 평생토록 ‘신자가 충분히 행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고민하게 하는 마음만 인간들에게 남깁니다. 이 제도는 신을 하늘의 아버지가 아니라 노예 감시자로 묘사하고 ‘신과 가까워지는 것’을 제외한 다른 감정으로 당신의 마음을 채우려 합니다. 그 결과 당신은 계속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또한 이 제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되는 의심으로 가득 채웁니다.

“내가 만약 무언가를 놓쳤으면 어찌지?”, “신의 요구사항을 다 지키지 못했다면?”, “잘못된 목록을 실행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라도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충분히 착하게 살긴 한 걸까?”, “얼마나



착하게 사는 것이 충분히 착한 것일까?”, “만약 내가 충분히 착하게 살지 못했다면?” 등등.

이러한 제도는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부를 쌓고 영향력 있는 종교를 형성하는 데에는 매우 좋은 방법이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두려움을 쫓아내거나 마음속에 있는 갈망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이 제도는 양심을 치유해 주거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주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가가도록 전혀 도와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제도들을 바라볼 때 반드시 질문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얻는 것에 관해 도대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깨닫고 있는 사실은 이러한 ‘행위’ 위주의 종교를 받아들여야 하면 성경의 주요한 교리들을 통째로 집어 던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번 직접 말씀을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딤후3:5)

이 말씀은 곧 당신의 선한 행위로는 하나님의 호의를 전혀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롬3:20)

하나님은 “나에게 보여 주기 위해 네가 행하는 선한 일들로는 너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롬4:5).

이 구절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보다 더 명확하게 이 문제를 설명하는 구절이 또 있을까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갈2:16)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은혜는 사람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더없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구원받은 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조금이라도 받게 해주거나 그분의 임재에 아주 미세하게라도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줄 종교 제도와 '행위'의 목록이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자, 저는 당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그게 말이 돼요? 당연히 사람은 자신의 선한 행위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종교와 복음



영존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내세 혹은 영원에 대한 의문을 품고 산다.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의 사유의 핵심은 사람의 영원성에 대한 것이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구원 시스템이 존재한다. 하나는 대부분의 세상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으로서 한 사람의 선한 행위가 악한 행위보다 많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철학, 선행, 고행, 예배, 문화, 희생, 자선 등을 통해 스스로의 행위를 가지고 영원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노력한다. 성경은 이런 것을 가리켜 가인의 길ियो, 종교라고 부른다(유11). 우리 주 예수님은 자신의 지상 사역 기간에 종교를 가르치는 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 부르며 크게 꾸짖으셨다(마3:7; 23:33).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서신서에서 3회나 종교라는 말을 쓰면서 종교 체제 하에서의 부정적인 것을 기술하였다(행26:5; 갈1:13-14). 종교는 결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며 오히려 지옥 불 속으로 그를 밀어 넣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롬3:23). 모든 창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서면 다 더러운 존재로 판명난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람 안에 있는 의는 모두 '더러운 누더기'라는 데 있다(사64:6). 그러므로 창조 세계의 외부로부터 오는 의 즉 사람을 지은 창조주께서 친히 베푸시는 의가 아니고는 그분 앞에 설 수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이다. 즉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스스로 사람을 찾아오셔서 자신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께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려고 십자가에서 죄로 인한 형벌을 다 담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시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그 뒤에 부활의 소망이 되신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고전15:2-4; 20-23).

아직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차분하게 이 글을 읽어보십시오. 올바른 생활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거나 자선 행위 등을 함으로써 받는 부수적인 어떤 혜택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과연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점수’를 따는 데 도움을 주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 주시며 용서해 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실까요?

대부분의 종교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종교의 목록에 나와 있는 일들을 행한다면 가능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대답해 드리자면 답은 “아니다.”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딤후3:5)

반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너의 행위로는 나에게 올 수 없다. 네가 나의 은혜를 얻고 내가 너를 받아들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와 관련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중 가장 직설적인 구절은 이사야서 64장 6절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엄청난게 큰 무언가가 있으며 그것 때문에 너의 가장 훌륭한

행동조차도 나에게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인간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문제에 관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지만 일단 지금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사람이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사람의 행위’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옳은 일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더 많이 용서해 주신다는 내용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더 큰 관심을 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것보다 우리와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냉담한 종교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가까운 관계 맺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그분과의 관계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잡다한 일들만 열심히 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에서 이 의견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고, 일단은 다른 단어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단어는 바로 ‘이루었다’(Done)입니다.

‘이루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충만합니다’, ‘종료되었습니다’, ‘다 준비되었습니다’, ‘다 성취되었습니다’, ‘다 충족되었습니다’,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말들입니까?

세상의 대부분 종교가 ‘행하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이루었다’는 카테고리가 남아 있습니다!

성경의 참된 메시지는 ‘이루었다’(Done)입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당신을 회복시켜 주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 주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It is finished)(요19:30).

이 구절은 문자 그대로 '다 지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말씀 중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때 무언가 엄청난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물인 성전에는 바깥쪽의 영역과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을 분리하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바로 그때, 그 휘장은 기적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을 분리하던 것이 완전하게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직접 그분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초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당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의 뜻은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값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과 췌값을 모두 갚아주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얻으려고 하거나, 그것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해 보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다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하신 말씀을 빌리자면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It is finished!).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족들을 위해 멋진 크리스마스를 계획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동안 돈을 저축하고, 선물을 사고, 포장을 하고, 장식들을 꾸미면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아침에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기 위해 신이 나서 달려오는데 선물을 열어 보려고 자리에 앉는 대신 당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기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이들이 창고를 정리하고 세차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구두를 닦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은 닦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뻐서 심장이 멎을 듯한 감정 대신에 당신은 실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일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얘들아, 지금 뭐하는 거니? 오늘은 아빠를 위해 무언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아빠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열어 봐야지.”

이에 대해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엄마 아빠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일을 하는 거예요. 일단 엄마 아빠를 위해 부지런히 일하면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친절을 받을 만한 자격부터 갖추도록 할게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아마 아이들에게 그런 것은 필요 없다고 설명을 할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저축을 하고 쇼핑을 하고 선물들을 샀는지 아이들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당신은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이 당신의 사랑을 듬뿍 담은 선물들을 열어 보며 즐거워하기를 바라지 어린 자녀들에게 섬김받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네가 바쁘게 무언가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 너는 정작 내가 이미 ‘다 이룬’ 것을 놓치고 있는 거란다.”

선물도 샀고 상도 차려져 있으니 이제 더 이상 할 일은 없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하나님의 초대는 당신이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분 앞으로 나아가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오직 두 가지만 있다는 가정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요점입니다. 이 세상에는 단 두 가지의 종교만 존재합니다.

### ‘행하라’(Do) 또는 ‘이루었다’(Done)

이것은 또한 ‘종교냐, 관계냐?’라는 말로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해 종교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단지 그분과 당신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말씀하신 것이 이 상황을 잘 설명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가까운 관계는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 또는 ‘소속감’에서 옵니다.

당신은 육신 그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을 만드신 창조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창조주를 아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분의 답은 매우 명확합니다.

천국은 결코 ‘행위’를 통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분은 ‘고용인/고용주’ 관계 이상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냉담한 종교 이상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가까운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과 하나님의 사이를 좁혀주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다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행하라’인가요, ‘이루었다’인가요?

당신은 여전히 ‘행위’를 의지합니까? 당신이 옳은 길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



게 만드는 종교의 행위 안에 갇혀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자신의 힘으로 얻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람들에게 자주 이 질문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것 같나요?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그럴 것 같아요.”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대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선한 일들도 계속 해 왔어요.

그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들은 아직도 자신의 선한 행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아직 ‘행위’에 매여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종교의 성과급 제도를 신뢰하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그분의 진리의 방법을 놓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질문에 무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행하라’인가요, 아니면 ‘이미 다 이루었다’인가요?

당신은 종교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창조주와 참된 관계를 맺으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차분하게 이 글을 읽으며 함께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둘째 장까지 왔는데, 아직 여덟 장을 저와 더 함께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이 육신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그분의 지침은 ‘행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나아갑시다. 다음 장은 아마 당신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 꽤 좋은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 3장

#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육신 그 이상의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한 뒤에도 여전히 몇 가지 질문이 계속해서 당신의 머릿속에 남을 것입니다.

몸이 죽으면 나의 나머지 부분은 어디로 가는 걸까?

지구에 남아서 마귀(귀신)처럼 떠돌아다닐까?

다른 생명의 형태로 환생할까?

아니면 연옥에 떨어져 여전히 천국에 가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일까?

모든 사람에게서는 자기만의 생각들이 있지만 그 의견들은 당신의 영원한 삶의 운명을 걸 만큼 믿음직스럽지 못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반드시 성경에서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무어라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진정한 당신 자신은 육신이 죽은 후에도 계속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간단히 말해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죽고 그 뒤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최종 목적지를 결정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자세히 다룰 테니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이 문제에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 뒤에 어디로 갈지 알고 싶으신가요? 혹시 그럴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당신이 영원을 어디에서 보내게 될지 진심으로 알고 싶지 않으세요?

‘행위’ 위주 종교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궁금증을 해결할 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궁금증만 늘립니다. 그런 종교는 당신을 불안의 틀 안에 가둬버립니다. 또 그런 종교는 당신에게 “내가 충분히 선한 일을 했나?”, “내가 옳은 일을 한 걸까?”라는 질문만 남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당신에게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만 남게 됩니다.

최근에 저는 같은 지역에 사는 한 여성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존경받을 만한 삶과 행복한 가정, 그리고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던 좋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천국으로 향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은 “그러길 바라지요!”였습니다. 그리고서 그분은 궁금한 표정으로 제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렇다는 걸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쯤 당신도 이 점이 궁금할 겁니다. 당신은 과연 이 문제에 관한 확실한 답을 알고 있습니까?

일단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복잡한 추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영원에 대해 추측하거나 두려움을 가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확실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원한 목적지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알리기 위해 무엇이든 하고 계십니다.

저는 당신이 어찌면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구절을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 제도는 이 구절을 피합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이 말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 바랍니다. 잠깐 답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당신 스스로 확실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궁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후회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이제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당신은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아마 알기를 원하시겠지요. 어쩌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정말 확실히 알고 있으신가요?

‘안다’는 단어는 충분한 자신감과 이해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의심이나 주저함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질문들을 없애 버립니다. 그것은 의심과 씨름하기보다는 사실에 기초를 둡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좌절하기보다는 진리를 신뢰합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이 지식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바꿀까요?

첫째로, 이 지식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아마 죽음은 지구 상에서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식이 그 의심들을 모두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

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건전한 생각과 권능과 사랑의 영이 있습니다.

둘째로, 이러한 사실은 당신의 삶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인생보다 커다란 무언가를 준비하며 죽음 뒤에 있는 그 무언가를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당신에게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친구여, 당신은 지금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곳이 어디인지 막연히 궁금해하며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고 마음의 짐을 벗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또한 당신을 위해 영원한 삶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확실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 구절을 한 번도 보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누구도 죽음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많은 이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해 준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좋은 소식이라 당신이 계속 이 책을 읽어나가셨으면 합니다. 이 책은 당신에게 점점 더 좋은 소식을 알려줄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미리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듣기 전에 먼저 안 좋은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반드시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으니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 4장

# 인간은 다 결함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줄리는 마치 대답을 듣기 싫어하는 듯 한참을 망설이다가 물어보았습니다. 줄리는 제가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던 레스토랑의 동료였는데 저를 조롱할 정도로 제 신앙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이 대화를 하기 며칠 전, 그녀는 잔뜩 취한 채 마감 시간에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이 다 나간 뒤 그녀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제가 그분을 믿는 것이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에 대해 마구 소리치며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던 지 며칠 뒤인 지금 줄리는 청소기를 돌리던 저를 갑자기 멈춰 세우더니 혹시 제가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진심으로 “네가 나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내 신앙을 조롱하면서 내가 너를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랄 수가 있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렇게 대답했다면 저의 대답은 그녀에게 교만하고 위선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런 대답은 줄리가 듣고 싶어 하는 답이 아니며 그녀의 마음을 열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신이 좋은 사람으로 비쳐지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만큼 좋은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이 누군가에게 인생의 실패와 좌절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면 그들은 이내 자신을 방어하는 전형적인 답을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자신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도 아직 저는 자신이 완벽하다고까지 말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이 점이 참 흥미롭지 않나요? 누구나 자신을 완벽하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불리는 건 싫어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난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라는 어중간한 답변을 하는 셈이 됩니다.

이 애매한 답변은 거의 모든 사람의 양심에 막연한 위안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각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이 항상 존재한다는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 악당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보다 더 나쁘다고 들먹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한, 자신을 ‘꽤 괜찮다’고 합리화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다고 여기도록 하는 묘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때 레스토랑에서 줄리는 제가 “줄리, 너한테 단점이 있는 건 나도 알지만 그래도 넌 나쁜 사람이 아니야.”라고 말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단점 투성이인데 제가 감히 어떻게 그녀를 비판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줄리에게 그 질문이 단지 표면적인 문제만은 아니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무어라고 말해주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줄리, 당신만 죄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죄인이예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당신이 화가 나서 이 책을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기 전에 조금만 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한테 설교하려 들지 말고 당신이 진짜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해 봐요.

줄리,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저는 진정으로 그녀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매우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불완전함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 과연 어떤 존재들일까요? 영원한 생명과 죽음 뒤에 있을 또 다른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지닌 ‘불완전함’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대단히 무거운 질문이지만 이에 대해 성경은 매우 명확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적 의도에 맞추기 위해 본래의 뜻을 숨기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제가 당신에게 알려 드리고 있는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정말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까? 어쩌면 당신은 이미 책을 읽어 나가면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좋은 소식이 남아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이제 자기방어 태세를 편하게 풀고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 당신과 저에게,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

이보다 더 앞에 나와 있는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롬3:10)

쉽게 말해 이 말씀은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확증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신이 남들보다 낫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절대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함 앞에서는 이러한 하찮은 비교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까지 점프를 해 보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아마 저보다는 더 높이 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또한 저의 다섯 살 난 딸보다는 높이 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 다 달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한참이나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보다 조금 더 낫건 혹은 더 나쁜건 간에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마치 도토리 키 재기처럼 무의미하며 모두 똑같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너에게는 문제가 있다. 너는 죄를 짓는다. 너는 완벽하지 않다. 너는 내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 너에게는 죄성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이것이 왜 그렇게 큰 문제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러한 문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매우 큰 걸림돌이 됩니다.

“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라고 우리는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아마 나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완벽함과 영광을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을 착하게 여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비하면 우리는 꽤 나쁜 사람들입니다.

만약 기준이 3m짜리 농구 골대라고 했을 때 당신의 점프 실력이 정말 뛰어나 다면 골대에 닿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기준이 밤하늘에 뜨는 달일 경우 당신이 무려 3m까지 점프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누가 점프를 해서 달까지 닿을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맞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닿지도 못할 불가능한 기준을 지키게 하셨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차피 그분의 기준에 닿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완벽한 기준을 제시하시고 지키도록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오직 단 하나의 결론만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높이 될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높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높이까지 우리를 들어 올려줄 분 즉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을 신

회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까지 점프를 하도록 시키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절망하거나 기적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당신은 스스로 달까지 점프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즉시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점입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전7:20).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 죄가 선한 행위까지 하나님의 눈앞에서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사64:6).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그분께 다가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생겨난 매우 큰 간격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결론 내렸듯이 선한 행위가 그 간격을 좁혀 주거나 나쁜 행동을 무효화시키지 못합니다. 마치 '신용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제가 이미 쓴 카드빚을 갚아주지 못하는 것처럼 선한 행위가 저의 죄를 덮어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의 관계는 이미 끊어지고 나뉘어 있다. 너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죄 속에 빠져 있어.

그분은 시편 51편 5절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

씀하십니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  
이다.

이 말씀은 곧 당신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수태되었을 때부터 당신의 영적 유전  
자 속에 죄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위나 행동의 문제가 아니  
라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세 아이가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는 아이들에  
게 죄를 짓는 법을 고의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말을 하거나 걷  
기도 전에 아이들은 이미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은 부  
모에게 불순종하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짜증을 낼 수도 있지요. 태어  
난 지 몇 년이 안 되어 아이들은 거짓말하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심지어는 서로  
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아이들은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  
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  
문이다.

이 말씀은 지구 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듯이 어린아이들에게도 죄  
가 들어가 있음을 잘 보여 줍니다. 우리 안에, 즉 영적인 혈관 속에 들어 있습니  
다. 아기일 때부터 우리 모두에게는 자연적으로 나쁜 일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이것은 단순히 행동의 문제  
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행동의 문제에 불과했다면 선한 행위를 함  
으로써 고쳐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한 행위로는 절대 이 문제

# 사람의 상태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렘13:23).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시51:5).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롬3:10)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그의 몸에는 첫 사람 아담의 피가 흐르므로 그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즉 사람은 죄를 지으므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다. 그러므로 '모태 신앙'이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고 '모태 죄인'이라고 해야 맞는다. 사람 안에는 본성적으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롬7:18). 성경은 본성에 속한 사람 즉 자연인을 가리켜 '지각이 어두워진 사람'이라고 말한다(엡4:18). 그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일을 인식할 수 없다. 하나님의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전2:14).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엡2:3) 하나님과 원수지간이고 따라서 결코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없다(롬8:7-8). 그의 마음은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여 부패되어 있다(렘 17:9).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 등이다(막7:21-22). 영적으로 볼 때 그는 죄와 범법으로 인해 죽은 존재이다(엡2:1).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듯이 자연인도 초자연적인 도움이 없는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없다(렘13:23). 이런 상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일이 구원의 첫걸음이다.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그보다 낮은 단계에 있는 세상의 어떤 창조물도 그를 변화시킬 수 없다. 오직 그를 지으신 분 곧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를 변화시켜 새 생명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고후5:17).

를 고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이라는 존재 그 자체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죄는 마치 치명적인 병처럼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이브가 죄를 선택한 후부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죄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싫든 간에 당신은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도록 만드는 엄청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일단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이라는 구절을 잘 보십시오. 더불어 ‘죽음’이라는 단어는 글자 그대로 ‘분리’(separation)를 뜻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당신과 저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미 그분 앞에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중심리학이 당신에게 말해주는 것과 이러한 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를 당신이 듣기 싫어한다는 것도 물론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이 바뀌나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이나 미치지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당신 속에 내재하는 영적 결함이 당신과 당신의 창조주 사이에 커다란 틈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안 좋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가끔은 좋은 소식을 삶에 적용하기 전에 나쁜 소식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완치 가능한 암에 걸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사가 당신을 완전하게 고칠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 줄 수만 있다면 그 전에 먼저 암에 걸렸다는 나쁜 소식을 들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암이 걸린 사실을 모른 채로 있는 것보다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하지



만' 완전하게 고칠 방법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치유를 이해하기 전에 당신은 먼저 그분의 진단을 받아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단은 간단합니다.

너는 영적인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고, 네가 나의 완벽한 기준을 지킨다는 건 불가능하다. 너를 나에게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선천적인 결함이 왜 이리도 큰 문제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못 본 채하시고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되는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그분의 답변을 들어봅시다.

## 5장

# 하나님은 단 하나의 지불 방법만 인정하십니다



저에게는 크리스마스 쇼핑이나 가족여행과 같은 특별한 날에 제가 원하거나 저에게 필요한 것을 살 때 사용하는 신용 카드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큰마음을 먹고 그 카드로 오백만 원어치를 마구 긁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다음 달 카드 고지서가 우편함에 도착하고 그 고지서에는 제가 갚아야 할 돈과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빚을 갚기보다는 카드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원래 그렇게 돈을 많이 쓰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실수로 카드를 많이 긁어 죄송하다고 말하며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고 설명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전화 한 통이 저의 빚을 갚아 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까요? 만약 제가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저의 빚을 탕감해 달라고 빌고 간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제 빚을 갚아줄 것만 같지만 현실은 절대 아닙니다.

당신 입장에서 보면 카드회사 사람들은 참 속이 좁고 법을 엄격하게 따지는 사람들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도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를 베풀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참 냉정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나 사실 이런 제 생각은 명백하게 잘못되었습니다. 카드회사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거나 인내심이 없거나 친절하지 못한 게 아니라 다만 공정하고 올바르게 제가 카드로 쓴 금액을 갚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저는 잠들기 전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저는 신부님이나 하나님께 저의 죄를 정기적으로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하지요.

저는 선한 일을 함으로써 저의 죄값을 치르고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실제로 카드회사 사람들이 제가 요구했다고 해서 임의로 저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임의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거나 죄에 따른 결과를 지워버리지 않으십니다.

카드회사 사람들은 지불 방법을 정해 두었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 어느 것도 저의 카드빚을 탕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불공평하거나 부당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매우 합리적입니다. 이 방법은 공정하고 올바릅니다. 그들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카드를 보내거나, 명절에 선물세트 또는 대형마트 상품권을 보내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빚을 없애는 올바른 방법은 그들에게 그들이 정한 올바른 지불 방법인 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카드회사가 확정해 놓은 기준이고 관행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따지지 않고 그저 그들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거래를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치르는 방식을 확립해 두셨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짓값은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평하고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시무시한 죄가 현재와 영원한 시간 속에서 만연하게 퍼지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단번에 죄를 처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은 죄처럼 파괴성이 강한 것에 대한 분명한 조치를 취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짓값을 치를 형벌을 미리 결정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협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형벌은 공정하고 공평합니다. 죄와 함께 따라오는 무시무시한 파괴의 힘을 고려해 볼 때 그 형벌은 오히려 선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그 형벌이란 과연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서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나...

죽음!

조금 가혹한 지불 방법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좀 너무한 것 같지요? 자, 그렇다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가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그것은 살인이나 난동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는 미국의 사법 제도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이겠지요. 만약 우리의 사법 제도가 그러한 잔혹 행위들을 받아들인다면 그 제도는 더 이상 '선한 제도'가 아닐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죄와 악이 영원히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은 더는 선한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은 죄에 대응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분의 공의로움이 죄의 값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저와 여

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단 한 가지의 지불 방법 즉 죄처럼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것에 대한 유일한 단 하나의 해결책만을 확정해 두셨습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죽음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사망도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이토록 악하고 파괴적인 것들은 단 하나의 공정한 값을 치르고 저 멀리 있는 최종 감옥에 보내져야 합니다. 죄는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확정적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제 사형 선고를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분께서는 선하시기에 우리를 영원히 병들게 할 해로운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하기에 그분께서는 죄가 사람과 세상을 파괴하는 것을 허락하실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동네에 살인범이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는 마음대로 남녀 노소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남자건, 여자건, 아이건 간에 어떠한 경로나 후회도 없이 마구잡이로 살인을 저지릅니다.

당신은 그 살인범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황당하게도 이미 누가 살인범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이도록 내버려 두기로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형벌도 없고 법적인 제재도 없고 공의도 없습니다. 오히려 수사관이 당신에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선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우리 경찰서는 그 누구도 감옥으로 보내지 않을 것입



니다.”라고 궤변을 늘어놓는다면 당신은 아마도 격분할 겁니다. 당신은 아마도 그 살인범이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해 보응을 받고 동네의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는 그렇게 사랑이 풍성하다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지옥을 만드셨는지 이해가 안 돼.”라든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냉정하게 심판하신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토록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삶에 존재하는 끔찍하고 파괴적인 것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죄가 자유롭게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는 죄와 죽음에 대해 최종적인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분께서는 최종적인 지불을 요구하실 것이고 그 짓값은 오직 단 하나의 형태로만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와 죽음이 머물게 될 최후의 감옥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감옥은 ‘불 호수’라고 불립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은 최후 심판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사망과 지옥이 불 호수에 던져졌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독자 여러분, 이것은 비열하거나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을 영원한 무덤으로 보내신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자, 이제 받아들이기 조금 힘들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자면 우리는 ‘인간의 의견’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법을 알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위해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옥은 본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에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바는 마귀와 죄를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것이며 또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인간과 친밀했던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자애로운 마음과 선한 성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게 사랑이 많으시고, 완전하게 선하시며, 완전하게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정의 제도는 죄의 값인 죽음을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죄가 몸 안에서 영적인 혈관을 타고 흘러 다니는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때문에 지금 매우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저에게는 반드시 치러야 할 죄값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요구하는 만큼 제가 지불해야 할 최소한의 금액, 즉 죄값이 있습니다. 이제 죄는 저와 하나님 사이에 우뚝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죄는 미워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저를 사랑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그 사람은 사랑하지만 동시에 암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암을 미워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제거해 버리기를 바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암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적이 되고 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정확히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롬8:7).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따뜻하게 느끼든 그렇지 않든 혹은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죄는 당신을 하나님의 원수로 만듭니다. 정말 비극적인 사실 아닌가요? 이 이야기는 아마도 삼키기에 쓴 약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스스로 길을 만들어 나간다면 선한 행위를 한다는 건 정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험곡처럼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죄가 그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곧 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 말은 무언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죄까지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실 수는 없으며 기세등등하게 죄가 살아있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죄가 존재하고 있는 한 우리는 죄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1초도 제가 그분과 떨어져 지옥에서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 절대 그분의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저는 죄와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 값은 죽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것

은 “암은 꼭 고쳐야 하는 병입니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암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암을 고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선하고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제 안에는 여전히 죄가 존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선한 행위로는 절대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죽음만이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죽음만이 그렇게 끔찍한 것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만약 죄가 남아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죄인으로서 그분을 마주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의해 제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단 한 곳입니다.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으며 사망과 지옥이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계20:13-14).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계21:8).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불 호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끔찍한 장소입니다. 사람은 다 각자의 죄로 인해 그곳으로 떨어집니다. 그것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바가 아니고, 그곳이 당신을 위해 마련된 곳도 아니며 다만 죄가 영원히 머무를 곳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기에는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은 불 호수로 향하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하나님은 두 번이나 둘째 사망에 대해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우리는 모두 한 번 죽고 그 뒤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지, 아니면 둘째 사망을 맞이할지가 정해짐을 보여 줍니다. 둘째 사망이란 불 호수에 떨어져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은 최종적이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서 무한대의 영원을 보내기를 절대 원하지 않지만 그것만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정죄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와서 정죄를 받게 한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습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유죄입니다.

네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롬2:1)

우리는 모두 문자 그대로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죄의 빛은 반드시 지拂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쁜 것들은 모두 죽음에 처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저주를 받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게 살아왔다고 해도 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으로 끔찍한 곤경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불해야 할 최소한의 값이 있습니다.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이상 당신과 저는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아무리 점프를 잘한다고 해도 달에 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고 그 빚을 갚는 방법은 오직 단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바꿔 줄 매우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But)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나(But)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롬6:23).

이와 같은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 6장

# 누가 저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는 없나요?



만약 제가 신용 카드 회사에 계속 전화를 걸어 제 빚을 탕감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돈 대신 과일 바구니를 보낸다거나 상품권을 보낸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아무 소용없으니 이제 그만하시고 빚이나 갚으세요. 만약 갚을 능력이 안 된다면 대신 갚아 줄 사람이라도 찾아보시죠.

이 대답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신 갚아 줄 사람을 찾으라니...

꽤 괜찮은 생각이군요.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돈을 주거나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누가 돈을 갚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빚을 갚는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물론 저의 방식대로가 아닌 신용 카드 회사의 방식대로 갚아야겠지요.

슬프게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방법에는 관심조차 없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죄의 빛을 갠아보려 노력하고 있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별로 놀랄 일도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을 가장 먼저 시도한 사람은 가인이었으니까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가인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께 헌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분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헌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헌물을 가져오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분은 가인의 헌물을 거절하셨습니다(창4:1-7). 가인의 헌물을 거절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값은 너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반드시 내가 제시하는 조건대로 지불해야 한다.

교만 때문에 자신의 방식대로 헌물을 드리기로 선택한 것은 가인 본인이었지만 도리어 그는 하나님에게 매우 분노했습니다. 아마 당신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기 정당화나 자기방어적인 반응을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선함이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분이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당신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마음을 열기 바랍니다. 자존심은 죄가 승리하도록 돕는 어리석은 원인 제공자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행한 선한 일들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의 죄값은 여전히 치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행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예수님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죄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엄격하게 경고하십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은 곧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행한 선한 일들을 쭉 늘어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최종적인 답변은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입니다. 그분께서는 “너는 내 방식대로 내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죄의 빛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둘째 사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공휴이 풍성하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완벽하십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서 그분 앞에 설 것입니다. 그분의 큰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큰 공의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려면 반드시 먼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그것에 대한 값을 전부 치르셔야 합니다. 한 번 그 값이 치러지면 그분은 저를 영원히 지속할 친밀한 관계인 가족으로서 인정해 주시겠지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죄값을 치려야만 합니다.

자, 이제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기적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처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디지 아니 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 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단 한 사람도 자신과 영원토록 분리되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지난 장에서 이 구절을 읽어 보았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롬6:23).

저는 신용 카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지만 당신이 대신 갚아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저의 친구이고 저의 빚을 공짜로 갚아 줄 만큼 저를 사랑한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저의 빚은 탕감될까요? 신용 카드 회사가 제 돈 대신에 당신의 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체’(substitute)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당신의 돈이 저의 부족을 대신 채워 주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당신의 선물을 받으면 그 돈은 저의 계좌로 들어와 제 빚을 탕감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대체 혹은 대용이 참으로 많습니다. 음식만 하더라도 소금 대용, 설탕 대용, 고기 대용 등등이 있습니다. 임시로 사용하는 가발도 있고 심지어 진짜 이를 대신하는 틀니까지 있습니다. 대체는 원래의 것을 대신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원래보다 열등한 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죄이고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죄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고 죽음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그리고 스스로 죄값을 치르려 하는 건 오히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길이란 걸 이해하면 저에게는 이제 단 하나의 가능성만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께 이렇게 물어보겠지요.

누가 저 대신 저의 죄값을 갚아줄 수는 없을까요?

저의 빛을 대신 갚아줄 누구 혹은 무엇이 어디에 없을까요?

저는 그냥 이렇게 파멸해야 합니까? 아니면 저를 대신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간단합니다.

그렇다. 너의 죄를 대신할 사람이 있다. 너를 위해 대신 죽어 줄 사람이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 줄 누군가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동시에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줄 누군가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을 위해 대신 죽어 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다면 계속 이 책을 읽으십시오. 이 대체 희생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7장

# 하나님의 유일한 기적의 대리인이 계십니다



먼저 이 대리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신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저의 죄값을 대신 치러 줄 수 없습니다. 사실, 인간은 모두 같은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한낱 인간이 서로의 죄값을 치러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같은 인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 선천적으로 무엇이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죄값을 치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 영원히 말살시킬 수 있는 ‘놀랍고도 기적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적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암 덩어리를 제거하고 새로운 영적 정체성을 부여해 주는 수술입니다. 그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내면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바꿔 줄 사람, 바로 죄가 요구하는 죽음을 우리 대신 치러줄 대리인이 절

실하게 필요합니다. 그 대리인을 통해서 우리는 그저 표면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영적으로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것을 '다시 태어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매우 종교적이고 선한 사람이며 백성의 치리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들을 해왔지만 예수님께서서는 3절에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므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즉 죄인에서 의인으로 영적인 자아가 변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놀란 치리자 니고데모는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나이까?(요3:4)

이에 예수님은 다음처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

물(양수)에 의한 첫째 출생은 육체적이지만 성령님에 의한 둘째 출생은 반드시 영적이어야 합니다. 후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할 사람은 빛을 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영적 피가 흐르도록 해줄 수 있는 기적적인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죄도 없고 빛도 없는 이 대리인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까지 부여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 대리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이에 대해 로마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그리고 다시 한 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니라.

그리고 19절은 이런 구원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는 한 사람[아담]의 불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같이 그렇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지만(요10:11)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천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 중 한 명은 그

분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찌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알겠나이까?

그러자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오직 자신만을 통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문자 그대로 “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기 원한다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와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침례나 교회 성직자 또는 다른 길을 통해 올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나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수 있는 유일한 대리인이십니다.

많은 종교에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다준다고 하는 중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성직자 또는 주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존재 목적은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들을 통해서만 그분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딤후2:5).

이것은 곧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중재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히려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이렇게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실 놀랍고 기적적인 대리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리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대리인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해결책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은 인간 이상의 존재여야 합니다.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우리 개개인을 위해 죽으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이것이 지나친 주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몇 가지 근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소서, 하느냐?(요14:9)

성인들이나 선한 선생들은 절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서는 그저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세계적인 종교의 창시자들이 문헌 무덤을

언제든지 방문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종교인 기독교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가 보면 그 무덤 문은 활짝 열려 있고 비어 있음을 볼 것입니다.

또한 역사적인 사실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신 뒤 그분의 제자들은 그들의 원래 직업인 어부의 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들 중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의 꿈은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자신이 거짓말이라고 믿는 것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간 후 며칠 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전하다가 심지어 끔찍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당신이라면 당신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위해 이렇게 엄청난 희생과 죽음까지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전파



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의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그것을 명백하게 증언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전15:20).

셋째로 우리는 모든 가정을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만이 이치에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셨거나 희대의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미친 사람 이 셋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미친 사람'이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지혜로우셨고 그분의 말씀은 논리가 정연했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너무나 막강했습니다. 또한 그분의 가르침은 너무나 참되었고 그분을 따르던 자들이 그분을 위해 기꺼이 죽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분이 거짓말쟁이었을 리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일생을 바꿔놓은 예수님의 3년간의 기적적인 사역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분의 실제적 부활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한다면 당신은 성경 전체를 갖다 버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페이지에는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들이 실타래처럼 촘촘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시고 들려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수십 개의 성경 예언들을 예수님께서서는 몸소 성취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구원자로 오실 때 언제, 어디에서 태어날지, 그분의 어머니는 누가 될지, 그분께서 어떻게 죽으실지 등과 같이 그분께서 보통의 사람이라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 즉 성경의 메시아 예언들이 단 한 구절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 할 구원자를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구원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요1:14). 그분께서는 우리를 죄라는 ‘무자비한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시려는 단 하나의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죄라는 원수가 우리의 삶을 침략함으로써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할 신분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께서 어떤 고난을 겪으셔야 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이제 더 좋은 소식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8장

# 예수님께서 우리의 짓값을 완전히 지불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겪으셨을 고통에 대한 그림을 봤거나 묘사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그 당시 로마 시대의 권력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 고문은 가능한 한 가장 긴 시간 동안, 가장 극심한 고통을 가하도록 고도로 숙련된 로마 병사에 의해 집행되었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당할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으로서 천천히 그리고 잔혹하게 처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느냐면 그 고통을 묘사할 수 있는 새로운 단어까지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그 단어는 ‘몹시 고통스러운, 극심한’이라는 뜻의 ‘excruciating’이라는 단어입니다(‘crux’는 라틴어로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의미함).

예수님은 모의재판 때 주먹으로 맞으시고 침 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의 수염은 강제로 뜯겨 나갔고, 사람들은 그분의 머리에 기다란 가시로 만들어진 관을 씌웠습니다. 그 가시들은 살을 뚫고 두개골 깊숙한 곳까지 찌르며 극심한 고통을 일으키고 엄청난 양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이토록 잔혹한 매질이 끝나고, 예수님께서서는 ‘아홉 가닥 채찍’이라고 불리는 형벌용 도구로 39대의 채찍질을 당하는 형에 처하셨습니다. 이 가죽 채찍의 아홉 가닥 각각의 끝부분에는 살을 베고 찢어버리는 금속과 뿔조각 그리고 돌맹이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 채찍을 사용하도록 훈련을 받은 병사들은 잔혹하게 몸에 상처와 고통을 입히면서도 목숨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고도로 숙달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이지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고문의 방법이었습니다.

마침내 겨우 목숨만 붙어 있던 예수님께서서는 커다란 나무 십자가를 강제로 지시고 조롱하는 무리를 지나 갈보리라고 불리는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그 언덕에서 그분은 십자가에 누워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신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일이 일어나기도 한참 전인 BC 700년경에 이미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당신을 위해 죽으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같이 우리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지만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는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고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해 매를 맞았기 때문이라. 또 그는 자



기 무덤이 사악한 자들과 함께 있도록 하였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어떤 속임수도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고통에 두셨으니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할 것이며 또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사53:3-10).

잠깐만 시간을 내어 성경의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읽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실 때 겪으신 일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불법(우리의 죄)을 위해 목숨을 내주시고 자신을 희생제물(값을 지불하심)로 바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구절입니다.

다 이루었다(It is finished)(요19:30).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가 무슨 뜻입니까?

문자 그대로 그것은 “완전히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지은 죄값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지불됐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즉 심지어 당신이 아직 짓지도 않은 죄까지도 모두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중재자이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을 심판의 자리로 내모는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신성한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기적 그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 로마 병사는 그분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는데 이 또한 성경 말씀의 구체적인 예언을 성취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무덤에 묻히시고 3일 후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 나셨습니다! 그분은 4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수난을 받으신 뒤에 또한 그들에게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자신이 살아 계심을 보여 주시고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행1:3)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부활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나 전설 또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류가 없이 확실한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당신에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당신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언을 성취하신 것으로 인해 당신의 빛은 온전히 갹아지고 모두 용서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완전히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탄생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위에서 제가 언급한 ‘완전한 영적 재건’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완전히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당신의 죄값만 치르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 즉 새로운 영적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기적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당신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 줄,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개조된 영적 유전시스템을 가진 새 정체성을 부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죄로 가득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죄의 빛이 없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가 참으로 의미하는 바입니다.

성경에서는 “완전히 지불하다”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매우 훌륭한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화해 헌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에 대한 완전한 지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롬3:25)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요 또한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요일2:2).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요일 4:10).

성경은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화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과 관계의 분리를 경험했을 때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 사람과 ‘화해’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18-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들을 그들에게 책임 지우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21절에서도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가요!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신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비슷한 구절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이 이 말씀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려고 우리 죄들로 인해 자신을 주셨으니(갈1:4)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을 향해 죽은 우리가 의를 향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벧전2:24)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 한 번 고난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해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려 하심이라(벧전3:18).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요일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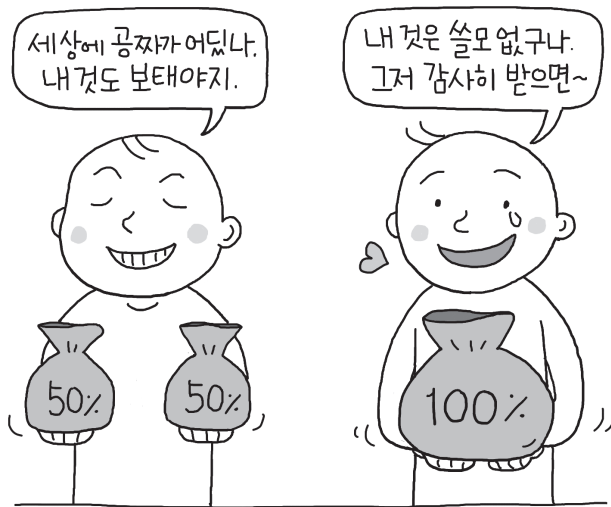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계1:5)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번 장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짓값을 부분적으로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지불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완전한 지불’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형제님과 이야기를 나눠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몇 시간 동안 그 형제님에게 이 개념을 이해시켜 드리고자 노력한 끝에 그 형제님의 머릿속에 뭔가 딱 하고 떠오르는 것이 있는 듯했습니다.

그 형제님은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예수님께서 저의 짓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여태까지 그것이 주고받는 관계인 줄만 알았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하셨고 저에게는 제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생각했었죠. 예수님이 50퍼센트 그리고 제가 50퍼센트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예수님께서 다 하신 거고 저는 원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00퍼센트, 저는 0퍼센트네요!



정확합니다. 이것은 50대 50의 비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죄값을 부분적으로만 지불하시고 나머지는 당신이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니다. 그분께서는 “거의 다 이루었다.”라고 하지 않으셨고, “부분적으로 이루었다.”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종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일부분만 치러주셨다고 가르치는 듯합니다. 많은 종교가 예수님께서 부분적으로만 죄값을 담당하셨으니 당신이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 당신이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절대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독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당신은 스스로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신성한 중재가 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당신의 벌을 모두 다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저의 죄를 모두 없애 주신 이토록 멋진 기적을 제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저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가 확실히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나의 죄 문제와 그 값이 해결되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믿으시겠습니까? 당신은 앞으로 이 책 속에 얼마나 더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 9장

# 최고의 선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매년 크리스마스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돈을 모으고 몇 달 동안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기도 한참 전에 이미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선물 목록을 만들기 위해 자기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아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8월만 돼도 아이들이 무얼 원하는지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몇 달 동안 아이들이 받고 싶어 하는 선물들이 어찌나 기발하고 점점 더 많아지는지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번 해에 제 아들은 기타, 2층 침대, 자전거 그리고 새 MP3 플레이어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최종 목록이 아니라 후보일 뿐입니다. 아직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려면 두 달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저와 제 아내는 시간을 내어 엄청난 인파 틈에서 크리스마스 쇼핑을 해야 합니다. 연말 크리스마스 쇼핑은 정글 탐험이라 부를 정도로 인파가 엄청난데 저와 제 아내는 그 엄청난 인파를 뚫고 그동안 열심히 번 돈으로 세 아이를 위한 선물을 삽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모든 돈을 써가면서 선물

을 삽니다.

마침내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면 이 순간만을 고대하며 잔뜩 들뜬 아이들의 손에 선물들이 쥐여집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한 가지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아무리 아이들에게 ‘착하게 행동’해야 선물을 받는다고 말을 해도 아이들은 그게 사실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말을 잘 듣든지 잘 듣지 않든지 혹은 심지어 아무리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선물을 받게 될 거라는 걸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막내 아이까지도 선물은 무언가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엄마, 아빠가 다 준비해 놓은 것이란 사실을 잘 압니다. 어린아이라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기 위해 돈을 내야 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치원생, 초등학생, 십 대 그리고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까지도 부모님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고 아이들은 받는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값을 지불해 주겠다고 하셨을 때, 당신을 지옥에서 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말 그대로 선물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진리는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구원은 선물이라는 것을 알려 주십니다. 이 구절들에서 그분께서 얼마나 많이 선물에 대해 비유하시는 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쳤기 때문이라. 또 그 선물은 죄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범죄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은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군림하였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와서 정죄를 받게 한 것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그 거저 주시는 선물도 모든 사람에게 와서 생명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였나니(롬5:15-18)

여기에서 핵심 메시지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을 통해 모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듯이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의 선물(칭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칭의’라는 단어의 뜻은 ‘의롭다고 선언하다’입니다. ‘의롭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거나 옳다’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죄 없게 하시고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서 또 한 번 우리는 비슷한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 그분께 감사를 드리노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야말로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 중 최고의 선물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선물은 당신이 여태껏 받았던 크리스마스 선물과 생일 선물을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비교조차 되지 않을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당신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해 주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에 대해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선물은 완전히 공짜라는 것입니다. 진짜 선물은 돈을 내고 사거나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선물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진짜 선물은 다른 누군가가 값을 내고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선물을 받기 위해 일을 하거나 자격을 갖추려 애쓰거나 값을 지불하려는 등 그 어떤 일이라도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만일 그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롬11:6).

자격이 없어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공훈과 은혜는 구분됩니다. 만약 경찰관이 속도위반을 한 당신을 불러 세우더니 경고만 하고 그냥 보내준다면 그 경찰관은 공훈을 베푼 것입니다. 은혜의 경우, 당신이 속도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찰관이 당신에게 십만원짜리 상품권을 주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훈을 둘 다 받았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가져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딤후2:11)

히브리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이렇게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선물에 대한 둘째 사실은, 그 선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당신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쥐어 준 선물은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강제로 떠넘겨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선물을 받음으로써 전해지는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어라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는 '당신 스스로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심'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값 주고 사신 선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얻거나, 사거나, 받을 자격을 갖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지불된 것입니다.

당신의 죄를 온전히 사면한 선물은 잘 포장되어 갈보리라는 나무 밑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선물은 당신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삶과 피로 사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사랑과 은혜로 당신에게 이 선물을 공짜로 주십니다. 그분은 이 선물을 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 했고 지금 이 시간 당신이 그 선물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선물을 받도록 강요하실 수 없고 당신이 선물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당신이 그 선물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디지 아니 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억지로 회개하게 하실 수 없고 또 당신이 죄를 깨닫고 유일한 치유자이신 그분께 돌아오도록 강요하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당신에게 강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자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주실 선물을 위해 모든 값을 지불하셨고 이제 당신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어떻게 당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제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10장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제 아이들이 선물을 열어 보기를 거부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잠깐만 그렇게 가정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우 실망할 것입니다.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 선물을 사고 포장하고 초조해하며 기다렸는데 아이들이 제가 준비한 선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절대 기쁜 일이 아닐 겁니다.

이런 상황은 매우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물을 받는다는 행위는 아주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받는 것은 재미있고 당신이 고대하고 기다려오던 것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아이들을 구슬려서 선물을 열어 보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아이들이 선물을 받도록 설득한 적이나 선물을 받을지 말지 고민하는 것을 지켜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제가 준비한 선물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설명해 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이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선물을 열어 보라고 하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즉시 달려가 눈에 보이는 선물들은 모조리 열어 봅니다.

그렇다면 왜 방금 이야기한 현실과 다르게 이리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

버지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 받는 것을 망설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많은 사람과 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들은 망설이고, 믿음의 문제 때문에 고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간단한 방법으로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들은 그 외에 분명히 무언가 더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날 그렇게 쉽게 자유롭게 해 주실 리가 없어요.”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분명 함정이 있거나 그것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친구여,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든지 간에 당신이 성경을 믿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과 죄의 값을 지불한 대가인 구원이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신다면 이 선물을 당신 것으로 만드는 데에는 단 두 가지 간단한 결정만이 남아 있습니다.

선물을 받기 위해서 당신은 두 가지 간단한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먼저 내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다음에 외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 절차는 이렇습니다.

만약 제가 길거리에서 당신에게 다가가 현금으로 백만 원을 드린다고 했을 때, 당신은 재빨리 두 가지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첫째로 당신은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당신은 아마 그 자리에 잠시 서서 저를 쳐다보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서 제가 무슨 의도로 그러는지 알아보려 할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 재빨리 제가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평가를 하겠지요. 아마도 십중팔구 당신은 저에게 의심을 품으며 저를 믿지 않기로 하고 가던 길을 갈 것입니다. 이런 경우 둘째로 내려야 할 결정은 별로 소용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내적으로 저를 믿기로 했다면 이제 당신은 외적으로 이

런 선택을 할 것입니다.

둘째로 당신이 내릴 결정은 그 선물을 받을지 말지의 선택입니다.

제가 백만 원을 그냥 주는 걸 당신이 민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실제 받기는 조금 꺼릴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양할게요.”라고 말하거나 “저보다 그쪽이 이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를 지나쳐 가던 길을 갈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믿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선물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참된 선물은 공짜임과 동시에 받는 사람이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선물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선물을 주는 사람을 민기로 결심하고 그 선물을 당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간단한 두 가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그 선물은 온전히 당신 것이 아닙니다. 그 선물의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당신의 이름이 쓰인 채 잘 포장되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것을 믿지 않고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절대 당신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는 절차입니다. 그 선물은 ‘기본’으로 당연히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선물을 ‘선택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다 준비된 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선물에는 당신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그 선물을 받지 않고 가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고 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도 당신의 몫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만들 수 있는 최악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 아이들은 크리스마스와 생일에 받는 선물에 대한 이 두 가지 결정을 참 빨리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거저 주는 선물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믿기 때문에 받는 것에 대해 별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듯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떠신가요? 선물을

받는 것이 정말로 수십 개의 방법으로 고심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짜 선물은 절대 ‘받지 말아야 할’ 수십 가지 이유를 찾아내야만 할 것 같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그저 공짜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신다면 이 선물은 지금 당장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선물을 받는 것’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킨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해하셨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절이 바로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13절에서 그분께서는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해 이 말씀은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오직 믿음과 자발적인 받아들임을 통해서만 우리의 것이 된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음속에서 먼저 시작되고 참되게 믿는 것은 성경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머리로 믿는 믿음’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머리로 믿는 믿음’은 그저 지식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믿는 믿음’ 즉, 참된 믿음은 그 지식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공항에 가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샀다면 저는 그 비행기와 항공사가 저를 미국으로 데려다줄 것을 머릿속으로 믿을 것입니다. 비행기를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머릿속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머리로 믿는 믿음’입니다.

‘마음속으로 믿는 믿음’은 항공사와 비행기가 저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줄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비행기에 실제로 ‘탑승’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 예수님을 머리로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에 적은 모든 것들을 머리로 이해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지불하신 죄값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인정하기를 거부한 채 매일매일 스스로 본인들의 죄를 덮어 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물어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마음속으

로 믿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당신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하시고 당신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불이 난 건물 5층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간신히 창문에 매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창문을 꼭 붙들고 있지만 자칫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방관들이 당신을 발견하고, 건물 밑에 안전망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빨리 안전망으로 뛰어내리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안전망과 빌당을 동시에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둘 다 신뢰한다면 당신은 죽고 말 것입니다. 당신은 둘 중의 하나만을 골라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백 퍼센트 신뢰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빌당을 신뢰한다면 그 빌당은 곧 무너져 당신을 화염 속으로 집어삼킬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소방관을 믿는다면 꼭 붙들고 있던 창틀에서 손을 놓고 믿음으로 안전망 위로 뛰어 내려야 합니다. 당신은 이 상황에서 ‘머리로 믿는 믿음’보다 더 높은 단계의 큰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신이 점프할 때에는 소방관들을 백 퍼센트 신뢰하는 ‘마음속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당신은 아주 짧은 순간에 두 가지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소방관들을 믿어도 될까?”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

만약 그 두 가지 질문에 예스라고 결론이 나면 빨리 뛰어내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뛰어내린다면 당신은 소방관들이 당신을 구해 주기 위해 한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너무나 많은 종교와 제도들이 ‘행위’ 위주의 신앙생

활을 강조하면서 쉽고 단순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빌딩에 매달려 있으면서 그와 동시에 소방관을 믿으려는 헛된 시도를 합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 행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동시에 믿을 수 없습니다. 둘 중에 반드시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결정을 내리셔야만 합니다. 만약 그것이 선물이라면 그것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의 노력으로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얻을 수 없고 그것은 참으로 공짜로 받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종교입니까? 혹은 당신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다시 그 두 가지 선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이 선물을 받아야 할까?”

당신은 이 두 질문에 대해 무슨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믿으십니까? 당신은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당신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이고 다시 태어나야 하는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만약 당신이 이 모든 사실들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믿는다면 당신은 거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당신이 제 아이들처럼, “네, 당연하죠! 누가 선물을 안 받으려 하겠어요? 어떻

게 받아야 할지 알려만 주세요.”라고 말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10:13).

당신이 하나님께로 직접 걸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분께서는 그저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믿으며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그 선물은 당신의 것이 될 겁니다. 온전히 신뢰하기로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그와 동시에 입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시면 그 선물은 그 즉시 당신의 것이 됩니다!

당신은 이 선물을 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단지 결정만 내립니다. 당신은 그저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선물을 받아들이기로 선택만 하면 됩니다.



이 책의 목적은 아마도 당신이 살면서 들어 볼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지 그렇지 않을지를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을 믿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저도 당신이 제 아이들처럼 선물을 받을 기회가 오자마자 달려가서 포장을 뜯어볼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속으로 이미 믿기로 결정하셨으면 고개를 숙여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간단하면서도 진실한 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것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죄인인 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서 지금 바로 저의 개인적인 구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언젠가 저를 천국에 데려가 주실 것을 온전히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말씀하신 약속을 지켜 주시고,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당신은 믿고 받아들이셨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곧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라도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금 바로 결정을 내리길 원하시고, 그분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 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나라(고후6:2).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예수님에 의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구원 받기로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자발적으로 위의 기도를 하셨다면 최고의 결정을 내리신 것을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방금 당신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당신의 삶에 적용시키셨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죄들은 이제 영원히 지워졌고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당신은 완전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거라는 말은 아닙니다. 죄를 짓겠지만 당신이 미래에 지을 죄들까지 이미 용서되었고 그 죄에 대한 값도 이미 지불되었습니다(그럼에도 당신은 당신 속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이전보다 죄를 덜 지으며 성화의 삶을 살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에 오셨고 당신이 그분의 은혜에 닿을 수 있도록 그분께서는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영적으로 철저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별로 달라진 느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의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고후5:17).

당신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영적 유전자를 가지게 되었고 이전의 죄 된 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롬6:6).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제 당신과 함께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분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은 뒤에 어디로 갈지 방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이루신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어떤 행동이나 죄 때문에 그 선물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분께서는 영원히 당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예수님]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나니(히7:25)

위에서 제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겠다고 말씀드렸지요?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여기서 ‘살리셨도다’는 말 그대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었던 당신을 살려 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결정입니까? 당신에게는 놀라운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매우 멋진 삶이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 책을 덮기 전에 당신이 알아야 할 몇 가지 사실들이 더 있습니다.

## 10장

### 결론



구원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영적 ‘개조’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다시 태어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방금 당신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났고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매우 중요한 사실들이 당신 곁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문자 그대로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전에 당신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마음속에 거함으로 인해 당신이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맺고 싶어 하시던 가장 가까운 관계이고 이로 인해 당신



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여러 가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당신을 더 좋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그분께서는 당신을 성장시키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당신은 새로 태어난 아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큰 성장을 경험할 것입니다.

당신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을 함께 기뻐하며 이 책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이 알아 두셔야 할 몇 가지 것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당신이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영원히 안전합니다. 성경에는 이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참조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없으리라(롬8:38-39).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엡1:13)

에베소서 말씀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당신을 소유하기 위해 친히 봉인하셨다고 가르칩니다.

다시 한 번, 성령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당신이 한 번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면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이 있지만 그중에 몇 가지만 말씀 드렸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에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는 삶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 정말 많은 것처럼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당신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 서로 격려해 주기 위해 교회에 모였습니다. 매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배워 가고 당신의

신앙생활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고 그 속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빨리 찾는 것이 당신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Striving Together' 출판사로 연락을 주시면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는 교회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친구여, 이제 당신에게는 새 삶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영원한 시간을 보낼 목적지가 생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당신의 모든 결정을 인도해 주시며 당신을 속에서부터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그분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할 수 있도록 당신의 미래를 인도해 주길 원하십니다.

구원을 위한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했던 것처럼 그분께서는 당신이 매일매일 그분의 사랑과 말씀 그리고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는 기쁨은 날로 커질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짓값은 다 지불되었으니 이제 어느 때라도 그분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이제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는 성직자나 그 어떤 중재자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아무 때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직접 나아올 수 있습니다. 기도로 그분과 대화할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 그분께서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돌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히4:12)

저는 당신이 매일 그분께 기도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그분께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을 절로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절감하며 그분을 절대로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겁니다.

이 책은 이사야서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사1:18).**

당신은 당신의 죄를 제거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죄를 제거해 주실 때 당신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께서 다 해 주신 일로 인해 하나님의 눈앞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당신에게는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변에 이 복된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과 이 귀한 소식을 나누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책을 그들에게 전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가서서 당신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된 소식을 전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그분의 선함이 당신의 선한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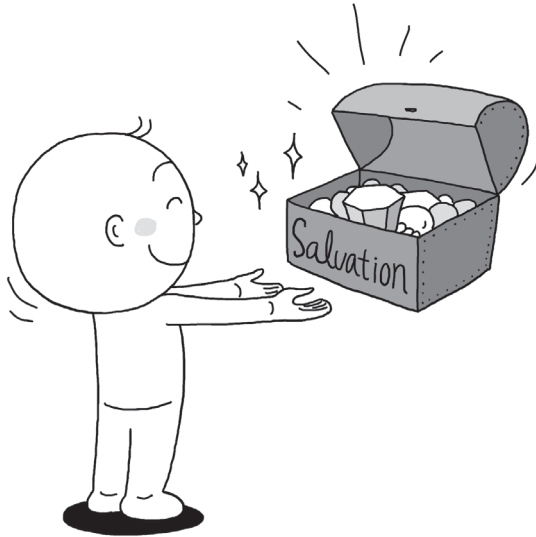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  
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  
려 하심이니라(엡2:10).

앞으로 당신의 인생은 예수님을 위해 사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가 아니라 그 은혜가 이미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복된 미래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  
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  
다, 함과 같으니라(고전2:9).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  
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절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험레벌떡 뛰어와서 막 떠나려는 기차에 가까스로 올라탔습니다. 아직도 숨이 가빠 험떡이며 땀을 닦고 있을 때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놓칠 뻔했는데 천만다행이십니다.”

“네! 이 열차를 놓쳤으면 네 시간이나 무료하게 기다릴 뻔했습니다.”

짧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사람들은 이렇게 필사적으로 땁니다. 하지만 영원한 미래를 생각하며 참된 길로 가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진화론은 사람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고 살고 죽는 모

든 것이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동차나 비행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다 설계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입니다. 먼지 가루를 땅바닥에 놓고 아무리 수억 년의 세월을 기다려도 자동차나 비행기가 저절로 생겨날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동차나 비행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비록 이루어진 인간이란 존재가 우연히 생겨날 수 있을까요? 인간과 온 우주를 우연의 결과로 돌리는 진화론은 과학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가설과 이론뿐인 신념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이는 모든 집이 어떤 사람에 의해 지어지지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  
문이라(히브리서 3장 4절).

성경은 말합니다. 우주 만물을 보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위엄을 누구나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로마서 1장 20절).

저 하늘을 보십시오. 해와 달과 별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충돌하지 않고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시계 부품을 통에 넣고 흔든다고 시계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설계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분을 무시하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상상 속에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짐승이나 해와 달 같은 창조물의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로마서 1장 21-23절).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렇지 않습니까? 이교도들은 돌덩어리를 깎고 나무를 새겨서 만든 각종 형상에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슬픔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왜 세상에 슬픔과 혼돈이 가득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할 수 없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들을 수 없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이사야서 59장 1절)

인간이 제멋대로 행한 죄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연애로 인한 에이즈(AIDS)의 만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로마서 1장 27절).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므로 모든 사람을 무조건 사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물건을 만드는 사람마다 자기 물건을 검사하여 설계대로 되지 않은 것은 다 폐기시키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도 창조물인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행하면서 창조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이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공의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부모자식 간에도 존재하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더불어 공의를 집행하십니다.

###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깨닫지 못합니다. 멸망의 종착역으로 달려가면서도 눈앞의 일에만 빠져 있습니다. 시간이 아깝다고 설 새 없이 시계를 들여다보면서도 정작 자기 인생이 치닫고 있는 방향은 보지 못합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히브리서 9장 27절)



부디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헤어날 수 없는 영원한 파멸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영원의 문제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는 것은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방향 없는 인생, 떠돌다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부담을 느낄 때 사람들은 흔히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고 낫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토리 키 재기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모두 드러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까맣게 잊고 있던 일과 자신도 모르던 마음의 의도까지 낱알이 다 밝혀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의 창조주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로마서 3장 10-11절). TV나 신문에 나오는 흉악한 범죄자들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죄인이면 마땅히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려고 애써 보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철학과 종교에 심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심판을 잊게 해주거나 조잡한 변명을 늘어놓을 뿐입니다. 인간이 하는 그 어떤 노력에도 구원에 대한 해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모든 사람의 죄의 대가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로마서 5장 8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9장 13절).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창조물인 우리 사람은 창조주께서 열어 놓으신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듯이 지금 이 글을 읽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잊은 채 살아가지 마십시오. 스스로의 노력으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온 우주를 지으신 분께서 당신을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마태복음 11장 28절).



당신은 이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아 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 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고린도후서 6장 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고린도후서 5장 17절).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영존하는 삶의 종착역으로 가는 구원열차를 타십시오!

▶▶ 성경지킴이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 추천 참고도서

###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티디, 큰글자, 박사, 신약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변화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개역성경분석 정동수 저, 그리스도예수안에(사랑침례교회 무료 요청)
9.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0. 뉴바이블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1.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2.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3.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4.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테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R. 베닛 & M. 버킹엄 저, 이길상 역, 아가페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테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 맥아더 저, 안보현 역, 생명의말씀사
8. 로마 카톨릭 사상 평가 로레인 비트너 저, 이송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9.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선호 저, 하늘기획

10.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 뉴에이지 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구 '천사는 있다', 'UFO는 있다')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뉴에이지 신비주의 - 이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현재 김태한 저, 라이트하우스
3. 뉴에이지 운동 평가 박영호 저, 기독교문서선교회
4. 뉴에이지 운동(IVP소책자57) D. 그릇하이스 저, 김기영 역,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5. 뉴에이지 운동(비교종교사리즈7) 론 로우즈 저, 은성
6. 뉴에이지에 대한 연구와 대책(울타리 문화교재시리즈6) 낮은울타리

## ● 오순절 은사 운동

1.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 저, 전의우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5. 성령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윤명길 저, 로고스 서원
6. 방언의 실제 윤명길 저, 로고스 서원
7.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박영돈 저,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IVP)

## ● 창조와 진화

1.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저, 생명의말씀사
2.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3. 기원 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두란노
4.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안 기쉬 저, 국민일보
5. 밝혀진 만물 기원과 창조 신비(창조과학시리즈1) 데니스 피터슨, 나침반
6. 숨겨진 공룡의 비밀 듀안 기쉬, 서용연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7. 자연과학과 기원 이용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8.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9. 가재!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윤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0.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넬슨 외 저, 전광호, 우재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1. 심판대의 다윈 제2판 : 지적설계논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치

12. 젊은 지구 J. 모리스 저, 홍기범 조정일 역, 한국창조과학회
13. 창세기에 답이 있다(구 '신앙 대 신념') 켄 함 & 폴 테일러 저, 한국창조과학회
14. 재창조는 없다 정동수 외, 그리스도 예수안에(근간)

##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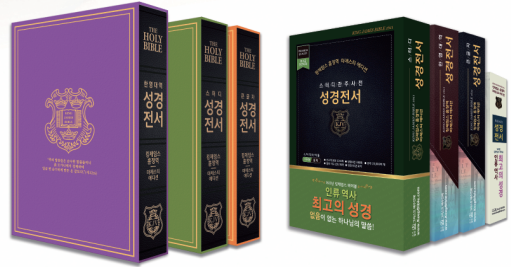
1. 성경 바로 보기 C. 라킨 외, 정동수 외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저, 정동수 감수, 그리스도예수안에
3.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A. 레이시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5.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6.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7.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8. 윌밍턴 종합성경연구 1,2,3 H. L. 윌밍턴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9.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빌 길햄 저, 유상훈 역, 도서출판NCD엔시티
10.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천 빌 길햄 저, 도서출판NCD엔시티
11.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A. 레이시, 정동수 외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12.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13.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4.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5.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6. 에스라 성경 사전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17. 성경의 역사 : 어둠 속의 등불 핀토 지음, 그리스도예수안에
18. 세상을 바꾼 책(KJB 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19. 재림과 휴거 :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헨리 모리스 지음, 그리스도예수안에
20.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존 맥아더 저, 생명의 말씀사
21.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그리스도예수안에
22.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잭 맥엘로이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23. 행위종교와 은혜복음 잭슨 외 저, 고정인 외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4.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 킹제임스 흠정역

1611년 킹제임스 바이블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



**마제스티에디션**  
한영대역 큰글자성경  
스터디바이블 작은성경



## 없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력 하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한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명령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간 세상을 비춘 **진리의 빛 1611년 킹제임스 영어성경**.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 원어의 단어들을 있는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 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전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유지되어 영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 용어 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하였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을 인정하여 번역하였습니다.
- 원어와 영어의 감동 그대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마제스티에디션**은 30년 동안 번역/교정하여 완성한 성경입니다.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http://www.lifebook.co.kr)

본 출판사는 생명의말씀사 온라인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꼽히며, 10년 전 처음 출간된 흠정역 성경은 이미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도서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NAVER](http://NAVER) 성경지킴이

# 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의 필독서!!

## 성경 바로 보기 라킨 외/ 정동수 역

그림과 도표 등 알기 쉬운 자료들이 컬러로 수록된 책. 라킨의 책과 부록들로 성경 신자의 필수 지식을 담아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책. 세대주의(경륜)에 관한 책 합본.

##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영혼 구원의 이유와 방법과 바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한 책으로 불신자는 물론 구원의 개념이 명확히 않은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내용. 강의 MP3포함.

## 천주교 시리즈 3권 우드로우, 릭 존스, 로이드 존스 외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책으로 기원과 교리는 물론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까지 알게 해주는 책. 3권 중 한 권만으로도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 킹제임스 시리즈 3권 사무엘 킵, 버튼 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답변서/ 입문서

역사 : 성경의 기록과 보존 과정, 번역 과정, 번역상의 문제와 오류 등을 짚어 준다./ 답변서 :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오해를 풀고 왜 오류가 없는지 밝힌다./ 입문서 : 길라잡이 역할, 흥정역 사용자들의 생생한 체험담 수록.

##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레이지 외

레이시 목사, 디한 박사 등의 책이 합본으로 담긴 책. 피의 성부와 성경적 원리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담은 책. 예수님 피의 복음이 왜 필요인지 알려주는 책.

##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레이지

레이시 목사의 천국 지옥에 관한 저서 2권 합본. 철저히 성경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 설명.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소망을 주며 전도에 대한 위급함을 일깨우는 책.

##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정동수

천사와 네펠림, 마귀의 천사들의 땅속 음모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속 시원히 풀어주는 흥미로운 책.

##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유인 외

유인 목사의 저서와 부록들로 구성해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기는 은사운동의 양상과 폐해를 파헤치고, 체험 주의 은사운동의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 주는 책.

##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 짝스 외/ 고정연 역

모든 것을 끝낸 복음과 행위로 이루어가는 불완전한 종교를 대비하여 구원의 영원성과 완결성을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한 책.

## 성경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 핀토/ 정동수 역

성경의 언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보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의 섭리 등 성경의 모든 역사와 바른 성경의 뿌리, 기타 역본들의 실체를 한눈에 보여 주는 책.

##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박용환 외 역

테러와 우상숭배의 종교 이슬람의 정체 및 마지막 때의 역할을 분석한 책. 한국 이란인교회 이만석 목사의 글 등 부록에 수록.

##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잭 맥엘로이

불신자들과 확신 없는 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들을 모두 비교해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알리면서, 영혼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변증한 책.

##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김홍욱 외 역

영어성경의 역사와 함께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 과정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면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한 책.

##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구약의 십일조, 일천 번째, 열린 예배와 록 음악, 방언/신유, 축사 등을 신약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책.

##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정동수 책임감수

유대인의 역사, 세계 정세, 다니엘서 해석, 배교 현황 등을 통해 말세의 징조를 돌아보고 시각 자료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 책. 바른 성경 해석과 베리턴 등 종말론 총정리

## 재림과 휴거 시리즈 2권 모리스, 정동수 외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바로 알기

창조과학의 아버지 헨리 모리스 박사가 성경을 추적한 종말 분석서와 재림과 휴거에 관한 기본 지식을 모은 두 권의 시리즈.

## 에스라성경사전/지도 2권 정동수 외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용어 색인 사전, 낱말 풀이 사전, 다양한 지도 및 선도 등을 제공한다.

## 킹제임스 흥정역

### 한영대역/ 스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다른 한국어 성경들은 물론, 기타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번역본 흥정역!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 한영대역은 영문 원본과 대조할 수 있고, 스터디 바이블은 에스라 성경사전과 지도 및 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큰글자 성경과 작은 성경도 있다.

## 박사 성경

현대 역본 성경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등과 다르다는 데 있다. 박사 성경은 NIV같이 소수 사본에 근거한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에 표시하여 누구라도 문제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 비교 성경

이것은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개역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 NIV 신약 성경을 4개의 열에 병행해서 배열하여 누구라도 쉽게 4개의 성경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한 성경이다.

## 개역성경분석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개역성경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 주고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가를 보여 준다.